

아세안(ASEAN) 확대과정 분석: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신규회원국 가입을 중심으로*

이진영**

I.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아세안)에 가입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세안 확대 과정의 주요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1995년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을 시작으로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을 통해 아세안은 10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다. 아세안은 1967년 창설 초기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모든 국가들에게 아세안 가입을 권유했다.¹⁾ 하지만 아세안 창설 이후 약 30여년 간 회원국 확대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아세안(ASEAN) 회원국 확대 연구: 신규회원국의 가입결정과 가입협상과정 비교분석”의 일부분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본 논문의 자료수집과 인터뷰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SSK 개발파트너십연구단과 싱가포르국립대학(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아시아연구소(ARI, Asia Research Institute) 연구원들, 그리고 본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5S1A3A2046224).

**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1) 아세안은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5개 국가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1984년 브루나이를 회원국으로 승인함으로써 1994년까지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아세안 회원국이 빠르게 확대된 현상은 단순히 냉전 종식과 같은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가? 혹은 다른 이유가 아세안 미가입국가들의 아세안 가입을 촉진시켰는가? 본 연구는 지역협력체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과 외부 환경의 변화가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지역협력체 가입 시기가 국가마다 왜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세안 가입 희망국들을 중심으로 아세안 회원국 확대 원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고 회원국이 증가하는 것은 국제정치를 특징짓는 주요 현상이다. 다양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지역협력체들이 새로 생성되고 동시에 기존 지역협력체들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고 회원국이 늘어나는 현상은 일견 자연스럽게 보인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 대부분의 지역협력체들의 회원국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영향인 것처럼 보인다.²⁾ 1990년대 중반부터 이뤄진 아세안 확대과정은 아세안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체제의 거시적 변화로 대부분의 지역협력체가 재그룹화 되고,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지역협력체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협력체는 회원국의 탈퇴 혹은 무관심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 창설 이전 동남아시아 지역에

2) 본 연구의 사례인 아세안 외에 대표적인 지역협력체 확대 사례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있다. 유럽연합은 1952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6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확대된 것이다.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의 가입, 1981년 그리스 가입, 1986년 포르투갈, 스페인 가입 이후 1995년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의 가입으로 15개국으로 구성되었다. 유럽연합은 2000년대에 급격한 회원국 확대 과정을 보인다. 2004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키프로스 10개 국가가 가입함으로써 25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2013년 크로아티아가 가입함으로써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형성된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해산된 대표적인 사례이다.³⁾

이와 같이 지역협력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확대되거나 정체를 또는 해체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협력체 확대를 추동하는 정확한 역동성(dynamics)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협력체가 속해 있는 지역의 국제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지역질서의 미래를 예측하는 토대가 되는 주요 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지역협력체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가입 희망 동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아세안 확대 과정의 주요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회원국 확대과정은 기존 국제정치 이론들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⁴⁾ 첫째, 일반적으로 조직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수렴되어 형성된다(Foot 1998). 아세안의 창설 목적은 회원국의 경제성장,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 유지, 그리고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박사명 2014; Jetschke 2009; Buszynski 1992). 따라서 냉전 종식과 더불어 공산주의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아세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비슷한 논의에서 냉전 종식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NATO는 원래의 기능이었던 군사, 안보적 측면의 역할을 다른 분야로 전환함으로써 지속되고 있다. 이와 달리 아세안 회원국 확대과정에 있어 아세안의 기능과 역할은 특별히 변화하지 않았다.

3)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는 1954년에 창설되어 1977년에 해체되었다. 당시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으로 구성되었다.

4) 아세안 확대과정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본 연구와 같이 아세안 회원국 확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기능이 확대된 연구들도 아세안의 확대 과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아세안+3(APT, ASEAN Plus Three),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이 있다. 아세안 중심의 지역협력체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박사명(2014)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아세안 확대는 기능주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지역협력체 확대는 기능주의 혹은 이를 확대한 신기능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Mattli 1999). 지역협력체에 속해 있는 회원국은 지역협력체를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한다. 특히 신기능주의 이론은 역내 경제교류가 어떻게 이뤄지고 제도화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Mattli 1999). 하지만 아세안은 회원국을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원국의 정치·경제 발전에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Roberts 2012; Tung 2007(a); He 2006; Kraft 2000; Funston 1999). 다시 말해 지역협력체가 미가입 국가들에게 지역협력체에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확대되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별 사례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귀납적(inductive) 방법을 채택하여 왜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세안 회원국이 급격히 증가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역적(deductive) 방법과 달리 귀납적 방법은 개별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한 후, 연구의 주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연구 자료는 아세안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Joint Communique 세션의 자료들과 아세안 회원국 확대 당시 관계자들의 기록 자료, 2차 문헌 그리고 아세안 전문가들과 아세안 회원국 확대 당시 관계자들의 직접 인터뷰 자료를 활용했다.⁵⁾

본 연구는 크게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은 아세안 확대과정

5) 아세안 공식 홈페이지(asean.org)의 News 세션 “Statements & Communiqués”에는 아세안 공식 회의 자료들이 업로드 되어 있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인터뷰 기간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5년 10월 2일까지이며, 인터뷰 대상은 아세안 전문가, 동남아시아 지역 학자, 아세안 확대 과정 시 참여했던 관계자들로 총 19명을 직접, 서면 인터뷰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안보와 경제 논리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1990년대 아세안 가입 희망 국가들인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동기를 제3장과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제5장은 연구의 분석 결과와 함의를 제시한다. 사례 분석을 통한 주요 발견은 아세안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국가의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뿐 아니라 체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써 지역협력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지역협력체 확대 현상을 분석하는 시각은 다양하다. 지역협력체 역시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이 확대되려는 일반적인 속성으로 지역협력체 확대를 바라볼 수 있다. 한번 생성된 조직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잘 정비될수록 유지되기 쉬우며, 거대조직은 조직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강한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관료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Waltz 2000). 아세안의 경우 이와 같은 논리로 회원국의 확대 과정을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유럽연합과 달리 아세안은 회원국을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Funston 1999; He 2006; Kim 2011; Kraft 2000; Roberts 2012; Tung 2007(b)). 오히려 다른 지역협력체에 비해 느슨한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다(강대창 외 2011; Acharya 2004; Ba 2009; Funston 1999; He 2006; Kim 2011; Kraft 2000). 아세안 역시 지역협력체로써 사무국이 존재하지만 사무국이 회원국의 이해와 독립되어 회원국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체의 기능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세안의 경우 무사와라(musyawah)와 무파캇(mufakat)으로 불

리우는 ‘협의를 바탕으로 한 합의’의 만장일치제와 회원국 간 내정 불간섭 원칙을 전제로 하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이 존재한다 (강대창 외 2011; Acharya 2004; Kim 2011). 이는 역내 국가들의 정체성(identity) 형성과 확산 등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 시각에서 아세안 확대를 설명할 때 적합한 논의이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아세안 통합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 규범, 그리고 정체성으로 구성된 아세안 방식과 연결된다. 하지만 아세안 회원국 확대 과정을 아세안 방식으로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아세안 방식은 새로운 전략적 환경에서의 도전과 기회에 대처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을 과소평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Kim 2011).

이와 같이 지역협력체 확대 과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지역협력체 생성과 관련된 거시적 시각의 설명을 적용하기 보다 이미 형성된 조직의 확대과정을 개별국가의 국내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냉전 종식과 같은 국제체제의 거시적 환경의 변화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었는지, 국가의 국내 정치 상황이 지역협력체 확대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국가의 외교정책이 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안보와 경제 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안보 논리

대부분의 지역협력체들은 냉전 시기에 이데올로기 대립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확대 과정은 동맹의 일환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의 존재 여부 또한 냉전 체제라는 거시적 환경에서 논의

되었다. 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안보적 협력을 전제로 한 국가 간의 연합이다(Walt 1987; Waltz 1979, 2000; Snyder 1991). 동맹이론은 자국의 생존을 위해 협력할 국가를 찾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제체제의 무정부(anarchy) 상태에서 국가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NATO의 사례처럼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체제의 변화가 NATO 존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동맹의 본질적 성격으로부터 기인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동맹이란 외부의 위협 또는 적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위협이 사라지면 더 이상 동맹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동맹은 단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가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은 크게 균형(balancing) 전략과 편승(bandwagoning)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균형전략은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연합이며, 편승전략은 강한 쪽을 선택하는 전략이다(Walt 1987). 하지만 균형전략은 강대국 논리에 가깝기 때문에 약소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Murphy 2010). 약소국들은 균형전략을 취하기 위해 강대국 편으로 가려고 하지만 만약 상대가 이를 거절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위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승전략을 취한다. 따라서 왈트(Walt)의 위협균형론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동맹이론에 의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약소국의 연합을 통해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거나, 중국과 연합하여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Goh 2008). 하지만 아세안은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강대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안보 논리를 구축해가고 있다. 이는 아세안의 발전과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아세안 발전과정을 보면, 아세안 창설 이전 동남아시아 지역은 개별국가 간 분쟁 및 갈등, 그리고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위협 요

인이 존재했다.⁶⁾ 당시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는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확산되고 있었다(Jetschke 2009; Zaw 1999; Acharya 1992). 따라서 1967년 아세안은 동남아시아에서 외부 위협이라 인식된 중국과 중국이 지원하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형성되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Ajibewa 1998). 하지만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공동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초기 아세안은 정치·군사적 연맹의 성격을 갖추지 않았다(Than 2005). 1967년 창설 당시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 또는 ASEAN Declaration, 아세안 선언)에 의하면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협력체라고 명시되어 있다(Than 2005).⁷⁾

하지만 1976년 발리 선언(ASEAN Summit Meeting)을 기점으로 아세안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정치, 안보 목적이 강화되었다. 1976년 발리 선언은 두 가지 배경 하에 형성되었다. 첫째, 1975년 베트남의 공산당 집권과 라오스, 캄보디아 내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 변화가 주요 원인이었다(Jones 2007; Narine 1998; Oral History Centre 1998; Khong 1997). 둘째 1970년대 오일(oil) 위기, 보호주의(protectionism) 정책 등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가 아세안 기능과 역할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75년 인도차이나 국가들에서의 공산주의 확산은 아세안 발전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었다(Henderson 1999).

6) 1965년 싱가포르의 독립과 관련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분쟁,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사바 지역 분쟁(1963-1966), 사라왁 지역의 독립 문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분쟁(1963-1965) 등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의 다수의 분쟁이 존재했다(Huxley 1984).

7) 방콕선언(Bangkok Declaration)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to accelerate the economic growth, social progress and cultural development in the region through joint endeavours in the spirit of equality and partnership in order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a prosperous and peaceful community of Southeast Asian Nations. (source: www.asean.org)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는 아세안 확대를 약소국의 연합으로 인식하는 주요한 근거를 제시한다. 아세안이 중국이라는 역외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으로 회원국을 확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지역과 더 가까이에 위치한 중국이 위협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 중 중국이 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시각의 연구들은 중국의 부상이라는 대외적 변화,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인식과 전략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위협적인지, 어떻게 위협적인지, 무엇을 위협이라 인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⁸⁾

기존 연구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관여(engagement) 정책을 두 가지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EAS와 같은 다자기구를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아세안은 중국을 포함한 지역협의체를 구상함으로써 역외 국가와의 긴장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Yue 1996). 둘째, 미국, 호주 등과 같은 역외 국가들과의 군사적, 경제적 관계 분석을 통해 아세안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 회원국 확대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안보 요인은 아세안 확대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설득력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동맹이란 외부 위협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주권 국가들이 상호 군사적 지원에 대한 약속을 뜻하는

8) 아세안 회원국 확대과정을 역외 강대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일종의 헤징(hedging)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아세안 전문가에게 직접 인터뷰한 결과 실질적으로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는 찾기 어려우며,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추정과 가정에 근거한다는 의견을 들었다(인터뷰 장소: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2015년 1월 21일).

것으로 반드시 군사적 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Holsti *et al.* 1973; Snyder 1991). 남중국해 분쟁과 같이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 하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아세안 회원국 확대 과정은 안보 논리로 분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2. 경제 논리

지역협력체 확대 논의와 관련한 경제적 설명은 통합된 시장이 주는 잠재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국가의 합리적 선택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지역협력체 확대에 대한 합리적 선택은 지역주의에 대한 수요를 추구 할수록 물질적 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역내 협력을 통한 거래비용 감소, 경제 규모 확대, 기술혁신 비용의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어 설명되고 있다. 특히 관세동맹(customs unions)과 같이 회원국들이 지역협력체 내에서 그들 스스로 관세를 낮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논의는 궁극적으로 자국의 무역 창출 확산으로 연결된다(Tan 2003).

이러한 특징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존하고 이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환경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초기 유럽연합의 기능 확대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다. 유럽의 사회적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권위주의 또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지역협력체를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에 관심이 많지 않다(Börzel 2013; Haas and Schmitter 1964). 따라서 지역협력체의 경제적 이익 추구 논의는 합리주의적이며 사회중심적(rationalist society-centred) 성격이 강한, 산업화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론이다(Börzel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확대 논의 역시 개별회원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세안 형성 및 가입 논의를 개별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Than 2005; Rüländ 2000). 냉전 종식 후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아세안 확대를 설명하는 경제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박사명 2014; Business Times 1993/07/21).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1992년 싱가포르에 의해 제기된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 ASEAN Free Trade Area, 이하 AFTA) 형성 논의가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아세안 가입을 희망한 국가들 역시 자국의 경제 발전과 성장을 위해 아세안 가입을 추진하였다(Snitwongse 1998). 특히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체제의 변화를 겪으면서 아세안 가입을 통해 국내 경제위기 상황 극복과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추구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 추구 논의는 개별국가 단위에서 본다면 합리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협력체에 가입하는 국가들의 가입 동기를 국가의 경제적 이익 추구로만 한정지어 설명한다면, 지역협력체의 속성을 지나치게 경제·물질적 측면으로만 부각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협력체 확대를 경제적 이익 추구에서 강조하다 보면 공공규칙, 규범, 규제 그리고 정책 등과 같은 제도적 측면의 논의가 배제될 수 있다(Mattli 1999). 다시 말해 지역협력과 지역통합에 대한 경제적 설명은 궁극적으로 지역통합의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아세안 확대 과정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국제환경의 변화와 같은 대외적 상황, 경제적 이익 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계량자료 접근에 대한 용이성, 객관적 경제 지표에 대한 확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세안 창설 목적은 경제발전과 이를 통한 지역안정 추구이지만, 실질적으로 아세안 확대과정에 있어 경제

통합에 대한 노력은 찾기 어렵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으로 AFTA 창설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와 선언이 과연 실질적으로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보와 경제 성장 추구 논리 모두 지역협력체 확대를 지나치게 물질주의 시각으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확대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더욱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구체적으로 왜 특정 시기에 아세안 가입을 희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왜 아세안 창설 당시 아세안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왜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세안 가입을 희망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기존 논의들로는 부족하다. 사례 분류 기준은 두 가지이다. 아래 <표 1>을 보면 베트남과 라오스의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 Southeast Asian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이하 TAC) 서명 시기,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TAC 서명 시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들의 가입 시기가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1>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연도

	TAC 서명	옵저버 자격	승인 기간	아세안 가입
베트남	1992.07	1992.	3년	1995.07.28
라오스	1992.07	1992.	5년	1997.07.23
미얀마	1995.07	1996.	1년	1997.07.23
캄보디아	1995.01	1995.	4년	1999.04.30

출처: 저자 작성

베트남과 라오스의 TAC 서명 시기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시기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또한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TAC 서명 시기

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입 시기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세안 가입 전후 이들의 국내 상황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은 아세안 가입 희망국가들의 가입 동기를 경제위기 상황 극복과 경제제재와 같은 고립상황 탈피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물론 국가가 지역협력체 가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세안 창설 초기 아세안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들의 아세안 가입 결정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당시 아세안 가입을 추진한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주요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국제환경의 변화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협력체 가입을 추동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정책결정자들이 변화된 국내외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이에 대응했는지를 복합적으로 보여준다. 아세안 회원국 확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국제환경 변화와 같은 대외적 변수, 경제 논리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내적 요인을 통한 분석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의들을 보완하여 아세안 가입 희망국가들의 국내 상황을 하나의 변수로 설명하고자 한다.

Ⅲ. 아세안 가입희망국의 가입 결정 요인 I: 경제위기 상황 극복

아세안 창설 회원국들은 아세안 창설 초기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을 희망했다.⁹⁾ 하지만 베트남의 공산당 집권으로 아세안 가입은 무

9) 1967년 아세안 창설 당시 회원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였다.

산되었다(Liang 1990). 당시 베트남은 아세안이 친서구 중심의 반공 산주의 협력체라 인식했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라오스는 아세안 창설 초기 아세안 창설 국가들로부터 아세안 가입을 권유 받았으나, 이들의 가입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뤄졌다. 베트남과 라오스는 1992년 7월에 개최된 제25차 아세안 각료회의(AMM, ASEAN Ministerial Meeting)에서 TAC에 동시 서명함으로써 아세안 가입을 희망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가입 동기는 냉전 종식이 가져온 단순한 결과라 볼 수 있는 것인가? 본 장은 베트남과 라오스의 아세안 가입이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임을 개별국가들의 경제 상황, 그리고 아세안 가입 이전 경제 정책의 변화 등을 통해 보여준다.

1. 베트남

베트남은 1995년 7월 28일 아세안의 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당시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1984년 브루나이의 아세안 가입 이후 10여년 만에 아세안 회원국이 확대되었다는 점, 둘째,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할 당시 베트남은 아세안 기존회원국과 다른 정치·경제·사회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가입이 승인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아세안 가입 조건에 의하면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TAC에 서명을 한 국가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회원국이 갖춰야 할 특별한 조건은 없다. 따라서 아세안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의 정치와 경제체제가 가입 신청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은 아세안 창설 목적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 결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당시 베트남의 국내정치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했

음을 알 수 있다(Tung 2002).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한 실질적 배경은 1986년 12월 제6차 전당대회(Sixth National Party Congress)에서 베트남 공산당에 의해 발표된 개혁·개방정책(doi moi, 도이모이)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Roberts 2012; Tay *et al.* 2001). 당시 베트남의 경제상황은 캄보디아와의 전쟁으로 악화되었으며,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했다.¹⁰⁾

베트남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요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당시 베트남은 미국과 소비에트연합으로부터 막대한 원조(aid)를 지원받고 있었으며, 이에 의존하여 베트남 스스로 경제 성장의 기회와 정책 변화를 도모하지 않은 배경이 되었다(Poter 1990). 베트남은 냉전이 끝나갈 무렵에도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또는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원조(grant aid)와 차관(loan)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주었다(Poter 1990). 베트남의 경제위기 극복 일환으로 고려된 아세안 가입에 대한 근거는 당시 정책결정자들의 발언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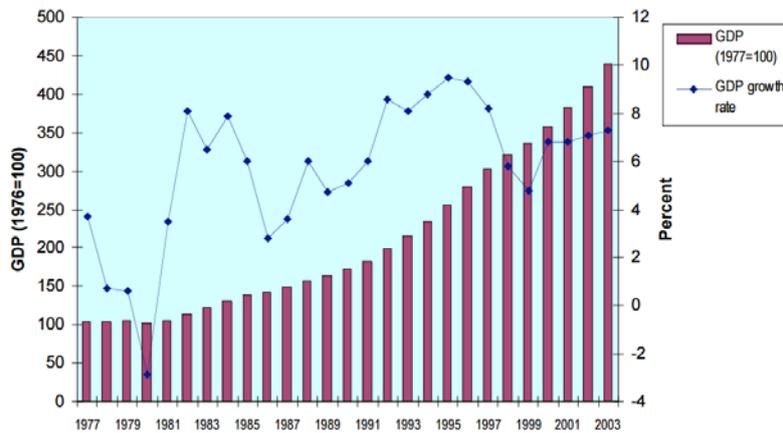
198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의 주요 정책들이 변화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두 가지 배경에서 기인했다. 베트남 국내에서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한 베트남 국내정책의 변화, 둘째 고르바초프(Gorbachev)의 ‘신사고 외교정책(new political thinking)’에 따른 국제사회의 변화가 주요 배경이었다(Chalmers 1997). 특히 캄보디아와의 전쟁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베트남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빠르게 철수한 이유 중 하나로

10)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전쟁은 1978년에 시작되어 1989년에 끝났다.

11)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 동기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달리 베트남 국내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인터뷰 장소: 싱가포르 국립대학 내에 위치한 ISEAS, 2015년 1월 26일,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2015년 1월 28일).

1980년대 후반 악화된 베트남의 경제 상황을 꼽을 수 있다(Huxley 1990). 아래 <그림 1>은 1980년과 1986년 베트남 국내경제가 급격히 침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는 기간 동안 대조적으로 아세안 회원국들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Chalmers 1997).

<그림 1> 베트남 경제 변화 추이(1977-2003)



출처: Pham *et al.* (2007), p.5. 재인용¹²⁾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로써 당시 부관(Vu Khoan) 베트남 부총리는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은 냉전 종식으로 인한 베트남 국내 경제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베트남은 냉전 기간 동안 소련과 코메콘(COMECON)에 의존했기 때문에 냉전 종식으로 더 이상 시장 (market)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과 기술이 필요했고, 이와 같은 국내 경제 상황의 변화

12) 197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 경제 위기를 설명해주는 위한 경제 지표의 원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2차 자료에서 재인용함을 밝힌다.

가 아세안 가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원인이 되었다(Severino 2006; Tung 2007(a)). 베트남은 아세안에 가입함으로써 국내의 불안정한 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1990년대 초기 베트남 내에서 파업과 산업분쟁이 빈번히 발생했다(Fort and Webber 2006). 이와 같은 사회불안정 요소는 베트남에 대한 외부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사회불안정, 경제 침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베트남 총서기(General Secretary) 레 두안(Le Duan)은 수출 확대와 자본투자 유치를 위해 외부와의 협력 확대를 촉구했다(Porter 1990). 즉 경제위기 상황 극복, 사회 안정 추구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체제유지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했다(Tung 2007(a)).

또한 당시 베트남 내에서는 베트남의 국내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 그리고 베트남 정치 세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세안 모델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¹³⁾ 구체적인 예로 1992년 후반 베트남은 아세안 기존회원국들의 정치 및 경제·사회체제 등을 분석했으며 이를 베트남 성장모델에 적용하기로 했다(Tung 2007(b)).¹⁴⁾ 베트남은 아세안 기존회원국들의 경제 성장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아세안 기존회원국들은 자주 원칙을 고수하며, 경제영역에 있어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둘째, 아세안 기존회원국은 수출주도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권위주의 국가라도 제한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에 결정적 영향을 준 요인은 국내 경

13)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베트남 정책결정자들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당시 정책결정자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연구된 포터(Poter, 1990)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14) Nguyen Ai Quoc National Political Academy Research Program, "ASEAN Political Structures and Systems," KX 05.02 (1992). Tung (2007 (b)) 각주 15번을 재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제 위기 상황 극복을 통한 체제 유지라 할 수 있다. 즉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은 1980년대 악화된 베트남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제안된 도이모이 정책과 더불어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었다.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은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임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안보와 체제유지 그리고 경제성장이 동시에 고려된 선택적 결과라 할 수 있다(Tung 2002). 1995년 7월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은 이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Leifer 1999).

2. 라오스

라오스의 아세안 가입 과정을 보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사례와 달리 기존회원국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¹⁵⁾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와 비교했을 때 라오스의 경우 특별한 국제정치 및 사회불안정 요소가 없었으며, 기존회원국들과 라오스의 이해관계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세안 가입 이전인 1980년대 중반부터 라오스는 ‘신경제관리(New Economic Management)’라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Bourdet 1996; Fort and Webber 2006). 라오스 역시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앙계획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기업 장려 정책과 수출 지향사업,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등이 포함된 시장경제 체제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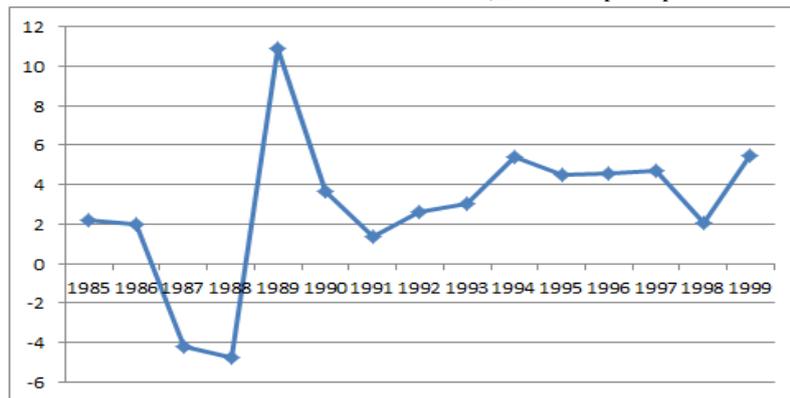
15)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에 대해 찬성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이었으며 반대 국가는 태국과 싱가포르였다.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에 대해 찬성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였으며 태국과 필리핀은 반대 입장을 취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에 찬성 입장이었으며,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환을 추구했다(Fort and Webber 2006). 라오스는 또한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아세안 가입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교역을 희망했다(Fort and Webber 2006).

이와 같은 배경은 라오스의 아세안 가입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1995년 라오스 정부 관계자는 라오스의 아세안 가입 동기는 베트남과 같은 이유라 언급했다(East Asia Forum 2011/11/14).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 동기는 국내 경제위기 극복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라오스 역시 경제적으로 낙후되길 원하지 않았으며, 지역협력체에 가입함으로써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해 질 것이라 판단했다. 아래 <그림 2>는 1985년부터 1999년까지 라오스의 GDP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라오스의 경제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는 급격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지만 이후 또 다시 감소 추세를 반복하는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라오스의 GDP 추이(1985-1999)

(단위: GDP per capita, annual %)



출처: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DI) 참고, 저자 재구성

라오스 정책결정자들은 경제성장을 통해 국내 불안정 상황을 안정시킴으로써 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Bourdet 1996). 물론 경제성장을 통한 체제의 정당성 확보는 라오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체제 전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오스는 국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협력체인 아세안에 가입하는 것을 시도했다. 아세안 가입 이전 라오스의 주요 이슈는 경제 성장 추구였다. 라오스는 냉전 종식과 더불어 소련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중국, 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Emmers 2005; Roberts 2012; Stuart-Fox 1995). 이와 같이 라오스가 아세안 가입을 통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전략적 선택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 동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라오스와 베트남이 TAC에 동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이 빨리 추진되었던 이유는 라오스의 경제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아세안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USD)의 초기 보증금과 매해 7십만 달러(USD)의 회비를 내야한다. 라오스가 아세안 가입을 희망하던 당시 라오스는 아세안에 가입할 의지는 충분했지만, 아세안 회원국으로써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 대한 준비는 미비한 상황이었다(Ariff 1997). 이와 같은 재정적 부담과 동시에 라오스는 아세안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다(Straits Times 1994/07/14).

이와 같이 베트남과 라오스의 아세안 가입 동기는 국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베트남의 경우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활용하려고 했던 안보적 요인도 존재한다. 라오스 역시 태국과의 국경 문제, 소수민족 갈등 등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을 활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베트남과 라오스는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IV. 아세안 가입희망국의 가입 결정 요인 II: 고립상황 극복

아세안 창설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1967년 아세안 창설 당시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Liang 1990, Zaw 1999). 미얀마의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비슷한 안보 상황은 아세안 창설 회원국들로 하여금 미얀마를 아세안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Zaw 1999). 하지만 아세안 창설 당시 미얀마 뿐 아니라 캄보디아도 아세안의 가입을 거부했다(Haacke 2006; Broinowski 1990). 미얀마는 아세안 창설 무렵 비동맹(NAM, Non-Aligned Movement) 국가 중 하나였다. 따라서 타국의 군대를 자국 내에 주둔시키거나 타국과의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비동맹 조약에 근거하여 아세안에 가입하지 않았다(Than 2005; Vinh 2014).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1968년 당시 호주 수상 고프 휘틀람(Gough Whitlam)이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을 권유하자 네윈(Newin)은 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은 어려울 것이라 언급했다(Liang 1990).

1967년 당시 캄보디아의 지도자였던 시아누크(Sihanouk)는 캄보디아가 중립국으로 남길 원했기 때문에 아세안 가입을 거부했다(Fry 2008). 즉 미얀마와 캄보디아가 아세안 창설 초기 아세안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냉전이라는 국제체제의 구조와 비동맹운동의 회원국이었다는 구조적 조건이 작용했기 때문이다(Roberts 2010). 하지만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1995년 TAC 서명을 전후로 하여 아세안 가입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그렇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아세안에 가입하길 원했던 것은 냉전 종식으로 설명

될 수 있는가? 본 장은 미얀마와 캄보디아가 아세안에 가입하려고 하는 동기가 단순히 냉전 종식과 같은 국제체제의 구조적 설명과 더불어 체제 유지의 일환으로 지역협력체를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1. 미얀마

미얀마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아세안 가입을 고려하지 않았다. 미얀마는 여전히 아세안이 역외 국가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Chachavalpongpun 2005; Narine 2002). 이는 베트남, 라오스의 TAC 서명 당시 미얀마가 TAC에 서명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미얀마가 아세안에 가입한 1990년대에도 필리핀에는 여전히 미군이 주둔해 있었다. 아세안 창설 초기 미얀마가 아세안 가입을 거부한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가 아세안 가입을 고려했기 때문에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 달리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미얀마는 베트남, 라오스가 1992년 TAC에 서명할 무렵 아세안 가입에 큰 관심이 없었다. 미얀마는 1995년 캄보디아와 동시에 TAC에 서명했다. 1992년 TAC에 서명한 라오스와 1995년 TAC에 서명한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은 동시에 이뤄졌을 뿐 아니라,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은 연기되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 승인 기간이 짧은 이유와 더불어 캄보디아와 비슷한 국내정치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가입이 빠르게 진행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제환경의 변화 뿐 아니라, 미얀마의 국내 상황이 바뀌면서 미얀마는 아세안 가입을 전략적으로 고려했다. 미얀마는 아세안 가입을 통해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고,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생

각했다(Roberts 2012; Storey 2011; Narine 2002; Buszynski 1998). 당시 미얀마는 인권탄압에 대한 서구사회로부터의 비난과 고립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1997년 4월 22일 미국 클린턴(Clinton)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투자 금지 시행, 미국 자국민이 미얀마 경제활동과 관련된 행동에 제재를 가했다(Than 2005; Cribb 1998). 유럽연합은 미얀마 공직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았다(Cribb 1998).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영국은 1998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회의에 미얀마 대표단의 비자 발급을 불허했다(Cribb 1998). 이와 같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조치와 고립 상황에 놓이게 된 미얀마의 경제상황은 아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2>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이(1988-1998)
(단위: USD Million)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인도 네시아	576.0	682.0	1093.0	1482.0	1777.0	2004.0	2109.0	4348.0	6194.0	4677.0	-356.0
말레 이시아	-	7.8	161.0	238.1	171.6	149.0	91.0	115.0	100.0	80.0	70.0
태국	1105.4	1775.5	2444.0	2014.0	2113.0	1804.0	1366.0	2068.0	2335.9	3745.0	6778.0
필리핀	936.0	563.0	530.0	544.0	228.0	1238.0	1591.0	1478.0	1517.0	1222.0	1713.0
싱가포르	3655.0	2887.0	5575.0	4887.0	2204.0	4686.0	8550.0	7206.0	7883.0	9710.0	7218.0
베트남	8.0	4.0	16.0	229.0	385.0	523.0	742.0	1400.0	1500.0	1800.0	1200.0
라오스	2.0	4.0	6.0	7.0	7.8	29.9	59.2	95.4	160.0	90.0	80.0
미얀마	-	7.8	161.0	238.1	171.6	149.0	91.0	115.0	100.0	80.0	70.0
캄보디아	-	-	-	-	33.0	54.0	68.9	150.8	293.6	203.0	220.0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 (2000), Key Indicators of Developing Asian and Pacific Countries 자료 참고, 저자 재구성.

1997년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얀마의 고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를 통한 자국의 경제성장은 베트남, 라오스와 동일한 이유라 할 수 있다(McCarthy 2008; Than 2005; Than and Gates 2001). 이와 같은 경제적 고립 상황은 궁극적으로 미얀마의 인권탄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미얀마는 전통적으로 비동맹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는 다자기구 가입을 통해 주권이 일정 부분 침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자주의 협력체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세안은 회원국 간 내정불간섭 원칙으로 다른 국가들의 영향력을 일정 정도 배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미얀마가 아세안에 가입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McCarthy 2008; Leifer 2001). 다시 말해, 아세안이 미얀마에 취한 건설적 개입 정책은 미얀마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미국, 일본, 유럽 등 역외 국가들의 비난과 제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아세안의 주요 특징은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에도 적용되어 설명된다.

하지만 당시 미얀마 정책결정자들의 발언을 보면 오히려 미얀마가 아세안에 가입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ribb 1988; Than 2005). 초기 미얀마의 개발계획부 장관(Minister for Planning and Development)인 데이비드 아벨(David Abel)은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 목적을 명확히 설명했다. 아벨은 미얀마는 아세안 조직을 강화하고, 지역 평화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아세안 가입을 희망했다고 언급했다. 아벨은 미얀마가 서구 사회로부터의 고립상황을 탈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아세안에 가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Gill 1997).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당시 미얀마 총리 삌 닌(Khin Nyunt)은 미얀

마는 아세안을 통해 미얀마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Severino 2006).

이와 같이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 동기는 서구 사회로부터의 제재와 압박에 대한 회피 전략, 아세안 방식을 통한 체제 정당성 확보, 동남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미얀마의 적극적인 참여의 일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세안 창설 초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냉전 종식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냉전 종식 이후 베트남, 라오스와 달리 미얀마는 아세안 가입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미얀마로 하여금 아세안 가입을 추진하게 했는가?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얀마의 인권 탄압에 대한 서구 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한 회피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얀마는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이 아세안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들이 다양한 정치체제, 사회문화, 경제발전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간 분쟁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을 높이 평가했다(Haacke 2006; Storey 2011). 이를 확대해서 본다면 미얀마는 아세안이라는 공식 지역협력체에 가입함으로써 정당성 확보와 동시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는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이 다른 신규회원국의 가입과정과 비교할 때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으로 작용한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과정은 아세안 기존회원국들의 입장이 주요하게 작용한 반면 미얀마의 경우 미얀마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오히려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Than 2005). 따라서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 전략의 일환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캄보디아

1994년 7월 23일 방콕에서 개최된 제27회 AMM에서 캄보디아는 TAC 서명 의사를 밝혔다. 캄보디아는 1995년 7월 28일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개최된 제28회 AMM에서 TAC에 서명했으며, 아세안 옵저버 자격을 받았다. 1996년 3월 23일 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오스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 역시 1997년에 아세안에 가입하길 희망했으며, 1996년 7월 17일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논의가 이뤄졌다. 이후 1997년 5월 31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0회 AMM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1997년 6월 중순 캄보디아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1997년 7월 10일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은 연기되었다(Severino 2006). 이후 1999년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이 승인되었다.

1967년 아세안 창설 당시 캄보디아 지도자였던 시아누크는 냉전 구조 하에서 캄보디아가 중립국으로 남길 원했다(Fry 2008). 당시 캄보디아는 아세안을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친서구적 성향의 지역협력체로 인식했다. 이처럼 아세안 창설 당시부터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아세안 가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던 캄보디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아세안 가입에 적극적인 가입 의사를 표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 절에서는 당시 캄보디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아세안 가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베트남, 라오스와 달리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훈센(Hun Sen)은 1992년 초에 아세안 가입 의사를 밝혔다(Möller 1998). 하지만 시아누크는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에 대해 반대했다. 시아누크는 천연자원의 대부분을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

고 있으며, 아세안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에 집중하여 자본집약적 부문에 투자하기 때문에 캄보디아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Möller 1998). 이와 같이 1990년대 초반 아세안 가입에 대한 캄보디아의 정책결정자들의 입장은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994년 7월 베트남과 라오스가 아세안에 가입하기 위한 의사를 표명할 당시 캄보디아는 아세안 가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Straits Times 1994/07/21). 이는 냉전 종식과 같은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가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즉 냉전 종식으로 인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지역협력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가입 시기는 비슷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 라오스의 아세안 가입 시기와 미얀마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고려 시기가 각기 다르다는 것은 아세안 확대과정에 또 다른 설명변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캄보디아는 1995년 12월 방콕에서 개최된 제5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동기를 언급했다. 당시 캄보디아 제1수상인 라나리드(Ranariddh)는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개최된 아세안 정상(heads of government)들과의 모임에서 캄보디아의 경제와 정치 발전을 위해 아세안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ASEAN Secretariat 1996). 캄보디아가 아세안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국내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아세안은 회원국 간 내정불간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아세안 가입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이 된다면, 향후 국내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가입을 통해 캄보디아 국내 문제에 있어 외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가입 동기는 미얀마의 가입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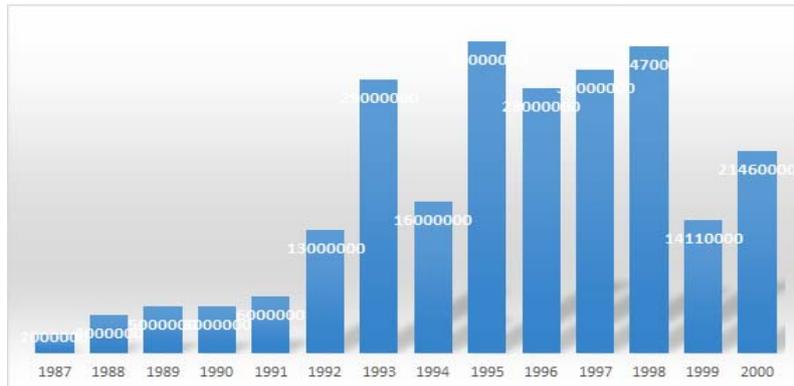
다. 국가의 정치 체제가 불안정 할수록 주권이 인정되는 공식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둘째, 캄보디아는 아세안 가입을 통해 아세안 기존회원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 판단했다. 특히 태국,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은 캄보디아에 있어 중요한 안보 사안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경분쟁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Storey 2011). 따라서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은 태국과 베트남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Emmers 2005).

물론 경제적 이익 추구 논리도 배제할 수 없다. 캄보디아 역시 베트남, 라오스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아세안 가입을 희망했다. 캄보디아의 경제적 위기는 훈센의 쿠데타로 인해 더욱 심각해졌다. 1997년 캄보디아의 쿠데타로 인해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군사 및 재정분야의 지원을 중단했다(Thayer 2010). 아래 <그림 3>을 보면 캄보디아는 미국으로부터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비슷한 수준에서 원조를 지원 받은 반면, 1999년은 급격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원조 추이(1987-2000)

(단위: current USD)



출처: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Net bilateral aid flows from DAC donors, United States 자료 참고, 저자 작성.

하지만 주요 공여국들은 인도주의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캄보디아에 원조를 제공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부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원조 중단은 캄보디아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Peou 1998).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제적 고립 상황은 캄보디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아세안 가입을 희망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쿠데타로 인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아세안 동시 가입은 무산되었으며, 아세안 기존회원국과의 관계 또한 악화되었다. 이에 대한 예로써 당시 쿠데타 발생으로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피시켰다. 이는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의도 뿐 아니라, 쿠데타를 주도한 집단에게 쿠데타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의 일환이었다(Peou 2000).

1997년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연기 이후, 캄보디아의 아세안 재가입 논의를 위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아세안 트로이카(ASEAN Troika)’를 구성했다.¹⁶⁾ 이 조직은 캄보디아의 쿠데타 중재를 주 목적으로 했으며, 모든 주요 행위자들과의 대담을 중지시켰다. 또한 훈센이 그의 반대 조직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개최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을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Abad 2011; Möller 1998).

훈센은 아세안의 이와 같은 조치는 아세안의 내정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며, 완강한 입장을 취했다(Sothirak *et al.* 2012; Eng 1999). 훈센은 아세안 트로이카 그룹이 캄보디아에 도착하기 전날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아세안의 개입을 거부했다(Jones 2007). 당시 알리 알라타스(Ali Alatas)는 아세안은 캄보디아가 아세안의 외부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라오스와 미얀마와

16)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알리 알라타스(Ali Alatas), 태국 외무장관 프라쭈프 차이야산(Prachub Chaiyasan), 필리핀 장관 도밍고 시아즌(Domingo Siazon)으로 구성되었다.

같이 아세안 회원국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변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Sothirak *et al.* 2012). 알라타스는 또한 1991년 파리 평화협정의 제5항과 제29항을 언급하며, 협정을 위반하는 어떠한 경우라도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Sothirak *et al.* 2012).

훈센은 알라타스의 설득에 수긍했으며, 1997년 8월 2일 아세안 트로이카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훈센은 1998년에 총선을 치를 것을 약속했다(Sothirak *et al.* 2012). 캄보디아의 이와 같은 변화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은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얀마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미얀마의 경우 인권탄압 국가라는 대외적인 이미지로 점차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으며, 경제 제재로까지 이어졌다. 캄보디아 역시 훈센의 쿠데타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이와 같은 고립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세안 가입을 시도했으며, 아세안을 외교적 도구로 활용했다.

1999년 4월 30일 캄보디아는 아세안의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비교했을 때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 특히 미얀마와 같이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이 미얀마 보다 늦게 승인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이 되기 위해 체제 안정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부여된 하나의 예외 사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히 증가한 아세안 회원국 확대

과정을 가입 희망국가들의 국내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사례를 통해 국가들의 국내 상황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하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개혁을 강행했다. 라오스 역시 냉전 종식 이후 더 이상 소련과 공산주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내 경제가 악화되었으며,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 아세안 가입을 희망했다. 베트남과 라오스의 아세안 가입 추진 동기는 국내 경제 발전이라는 명확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반면 미얀마는 인권탄압에 대한 서구 사회로부터의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고립상황이 악화되었다. 캄보디아 역시 훈센의 쿠데타로 정권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부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 따라서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면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역협력체를 활용했다. 지역협력체는 공식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협력체에 속한다는 것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임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면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베트남, 라오스와 같이 경제 위기 상황 극복,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상황을 탈피하며 동시에 체제 정당성 확보를 추구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과 라오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협력체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Mattli 1999). 이와 같이 경제 위기 상황 극복, 그리고 체제의 정당성 확보 등을 모두 포괄한다면 아세안 가입 희망국은 자국의 체제 유지를 위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아세안 가입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을 돌이켜 보면 아세안 신규회원국들의 아세안 가입 결정 시기가 왜 각기 다른지, 그리고 이들의 가입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잠정적 답을 구할 수 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아세안 창설 초기 아세안에 가입하지 않은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들은 자발적으로 아세안 가입을 희망했다. 계속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냉전 종식과 같은 국제정치의 변화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정책결정자들이 변화하는 현상에 대응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정치 변화를 통제하더라도 왜 개별국가들의 가입 시기가 각기 다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 각 국가들의 가입 승인 기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아세안 회원국 확대가 하나의 독립변수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TAC 서명 시기를 중심으로 베트남과 라오스의 가입 기간의 차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가입 기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아세안은 유럽연합과 달리 느슨한 연합이라 인식된다. 따라서 아세안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가입 승인 기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주요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TAC에 서명한 국가들은 회원국으로 인정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한다면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연기는 또 다른 설명이 요구된다. 미얀마 역시 인권탄압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아세안 가입 연기는 또 다른 시각의 설명이 필요하며, 현재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연기에 대한 하나의 설명변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함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아세안에 가입한 국가들의 가입 동기를 아세안 창설 초기와 비교함으로써, 무엇이 이들의 아세안 가입을 추동했는지 구체적인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지역협력체 회원국 확대가 단순히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수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국가의 국내정치 상황

이 반영된 국가의 전략적 선택임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의 외교정책에 있어 지역협력체가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아세안 신규회원국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지역협력체 확대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 접근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가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음을 개별 국가들의 국내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참고문헌〉

- 강대창 · 박나리 · 유현석 · 김형중 · 이동윤. 2011.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 박사명. 2014. “아세안공동체와 동아시아공동체.” 『동남아시아연구』 24(3), 1-44.
- 손혁상 · 이진영. 2013. “아세안(ASEAN) 확대와 개발격차(development gap): 회원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발정책 분석.” 『국제지역연구』 17(3), 49-84.
- Abad, M. C. 2011. *The Philippines in ASEAN: reflections from the listening room*. Manila: Anvil Publishing.
- Acharya, Amitav. 1992. “Regionalism and Regime Security in the Third World: Comparing the Origins of the ASEAN and the GCC.” edited by Brian Job, *The Insecurity dilemma: national security of the Third World states*. Boulder: L. Rienner Publishers.

- _____. 2004. "How Ideas Spread: Whose Norms Matter? Norm Localiz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Asian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2), 239-275.
- Ajibewa, Aderemi Isola. 1998. "Regional security in an expanded ASEAN: A new framework." *Pacific Review: Peace, Security & Global Change*, 10(2), 127-140.
- Ariff, Mohamed. 1997. "From ASEAN-Six to ASEAN-Ten: Issues and Prospects," in chapter 5. *AFTA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Economy*.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Studies.
- ASEAN. 1967. "ASEAN Declaration."
- _____. 1996. Fifth ASEAN Summit (Bangkok, 14-15 December 1995): Meeting of the ASEAN Heads of Government. Jakarta: ASEAN Secretariat.
- Ba, Alice D.. 2009. *(Re) negotiating East and Southeast Asia: region, regionalism,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urdet, Yves. 1996. "Laos in 1995: Reform Policy, Out of Breath?" *Asian Survey*, 36(1), 89-94.
- Börzel, Tanja A. 2013. "Comparative Regionalism: European Integration and Beyond," in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edited by Walter Carlsnaes, Thomas Risse and Beth A. Simmons, London: SAGE.
- Broinowski, Alison. 1990. *ASEAN into the 1990s*. New York: St. Martin's Press.
- Buszynski, Leszek. 1998. "ASEAN's New Challenges." *Pacific Affairs*, 70(4), 555-577.

- Chachavalpongpun, Pavin. 2005. *A plastic nation: the curse of Thainess in Thai-Burmese relations*.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Chalmers, Malcolm. 1997. "ASEAN and confidence building: Community and change after the cold war."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18(1), 39-56.
- Cribb, Robert. 1998. "Burma's entry into ASEAN: Background and Implications." *Asian Perspective*, 22(3), 49-62.
- Emmers, Ralf. 2005. "The Indochinese enlargement of ASEAN: security expectations and outcome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9(1), 71-88.
- Foot, Rosemary. 1998. "China in the ASEAN Regional Forum: Organizational Processes and Domestic Modes of Thought." *Asian Survey*, 38(5), 425-440.
- Fort, Bertrand and Douglas Webber. 2006.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Europe: Convergence or Divergence?* Oxford; New York: Routledge.
- Fry, Gerald. 2008.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New York: Chelsea House.
- Funston, John. 1999. "Challenges Facing ASEAN in a More Complex Ag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1(2).
- Gill, Ranjit. 1997. *ASEAN towards the 21st Century: A Thirty-year review of the ASEAN, with a foreword by the Secretary-General of ASEAN*. London: ASEAN Academic Press.
- Goh, Evelyn. 2008. "Great Powers and Hierarchical Order in Southeast Asia: Analyzing Regional Security Strategies." *International Security*, 32(3), 113-157.

- Haacke, Jürgen. 2006. "Myanmar and ASEAN." *Adelphi Papers*, 46(381), 41-60.
- Haas, Ernst B. and Phillippe C. Schmitter. 1964. "Economics and Differential Patterns of Political Integration: Projections about Unity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Organization*, 18(4), 705-737.
- He, Kai. 2006. "Does ASEAN Matte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Institutional Realism and ASEAN." *Asian Security*, 2(3), 189-214.
- Hernandez, Carolina. 2008. "ASEAN's China Strategy Towards a Regional Order: A Philippine View." 3rd Berlin Conference on Asian Security.
- Holsti, Ole R., Terence Hopmann and John Sullivan. 1973. *Unity and disintegration in international alliances: Comparative Studie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Huxley, Tim 1984. "The ASEAN States' defence policies, 1975-81: Military responses to Indochina?" Working Paper No.88.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Strategic and Defence Studies Centre.
- _____. 1990. "ASEAN Security Co-oper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in Alison Broinwsky, *ASEAN into the 1990s*. New York: St. Martin's Press.
- Jetschke, Anja. 2009. "Institutionalizing ASEAN: celebrating Europe through network governance."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22(3), 407-426.
- Jones, Lee. 2007. "ASEAN intervention in Cambodia: from Cold War to conditionality." *Pacific Review*, 20(4), 523-550.

- Khong, Yuen Foong. 1997. "ASEAN and the Southeast Asian Security Complex," in *Regional Orders: building security in a new world* (eds) by David A. Lake and Patrick M. Morgan.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Kim, Min-hyung. 2011. "Theorizing ASEAN Integration." *Asian Perspectives*, 35, 407-435.
- Kraft, Herman Joseph S. 2000. "ASEAN and intra-ASEAN relations: weathering the storm?" *Pacific Review*, 13(3), 453-472.
- Leifer, Michael. 2001. "Regionalism Compared: The Perils and Benefits of Expansion," in *The Asia Pacific in the New Millennium: Political and Security Challenges*, (eds), Mely C. Anthony and Mohamed Jawhar Hassan, Kuala Lumpur: ISIS Malaysia, 499-504.
- Liang, Chi Shad. 1990. *Burma's foreign relations: neut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Praeger.
- Mattli, Walter. 1999. *The Logic of Regional Integration: Europe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rthy, Stephen. 2008. "Burma and ASEAN: Estranged Bedfellows." *Asian Survey*, 48(6), 911-935.
- Möller, Kay. 1998. "Cambodia and Burma: The ASEAN Way Ends Here." *Asian Survey*, 38(12) 1087-1104.
- Murphy, Ann Marie. 2010. "Beyond Balancing and Bandwagoning: Thailand's Responses to China's Rise." *Asian Security*, 6(1), 1-27.
- Narine, Shaun. 1998. "ASEAN and the Management of Regional Security." *Pacific Affairs*. 71(2), 195-214.
- _____. 2002. *Explaining ASEAN: Regionalism in Southeast Asia*.

- U.S.: Lynne Rienner.
- Oral History Centre. 1998. "Senior ASEAN Statesmen: A Catalogue of Oral History Interviews." National Archives of Singapore, National Heritage Board.
- Peou, Sorpong. 1998. "Cambodia in 1997: Back to Square One?" *Asian Survey*, 38(1), 69-74.
- _____. 2000. *Intervention and Change in Cambodia: towards democracy?*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Pham, Quang Ngoc, Bui Trinh and Thanh Duc Nguyen. 2007. "Economic performance of Vietnam, 1976-2000: New evidence from input-output model." DEPOCEN Working Paper Series No. 2007/13.
- Porter, Gareth. 1990. "The Transformation of Vietnam's World-view: From Two Camps to Interdependenc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2(1).
- Roberts, Christopher B. 2010. *ASEAN's Myanmar Crisis: Challenges to the Public of a Security Community*. Singapore: ISEAS.
- _____. 2012. *ASEAN Regionalism: Cooperation, Values and Institutionalisation*. New York: Routledge.
- Severino, Rodolfo. 2006. *Southeast Asia in Search of an ASEAN Community: Insights from the former ASEAN Secretary-General*.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nitwongse, Kusuma. 1998. "Thirty years of ASEAN: achievements through political cooperation." *Pacific Review*, 11(2), 183-194.
- Snyder, Glenn. 1991. "Alliances, balance, and stabil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1).

- Sothirak, Pou, Geoff Wade and Mark Hong. 2012. *Cambodia: Progress and Challeng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Storey, Ian. 2011. *Southeast Asia and the Rise of China: The search for security*. New York: Routledge.
- Stuart-Fox, Martin. 1995. "Laos: Towards Subregional Integration." *Southeast Asian Affairs*, 177-195.
- Tan, Gerald. 2003. *ASEAN: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ingapore: Eastern Universities Press.
- Tay, Simon, Jesus Estanislao and Hadi Soesastro. 2001. *Reinventing ASEAN*.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Than, Mya. 2005. *Myanmar in ASEAN: regional cooperation experience*.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Studies.
- Than, Mya and Carolyn L. Gates. 2001. *ASEAN Enlargement: impacts and implication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Tung, Nguyen Vu. 2002. "Vietnam-ASEAN Co-operation after the Cold War and the Continues Search for a Theoretical Framework."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4(1).
- _____. 2007(a). "Testing the Institutional Approach: Cooperation between Vietnam and ASEAN," in *Vietnam's New Order: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State and Reform in Vietnam* (eds). Stéphanie Balme and Mark Sidel. New York: Macmillan.
- _____. 2007(b). "Vietnam's Membership of ASEAN: A Constructivist Interpretatio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9(3), 483-505.

- Vinh, Vo Xuan. 2014. "ASEAN's approach to Myanmar." *Himalayan and Central Asian Studies*, 18, 1/2.
-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Waltz, Kenneth.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McGraw-Hill.
- _____. 2000. "NATO expansion: A realist's view."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21(2), 23-38.
- 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Yue, Chia Siow. 1996. "The deepening and widening of ASEAN."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1(1), 59-78.
- Zaw, Aung. 1999. "ASEAN-Burma relations." *The Nation*.
- Business Times (Singapore). 1993.07.21. "Reshaping Pacific security the ASEAN way."
- East Asia Forum. 2011.11.14. "ASEAN's newer members and the Asian noodle bowl."
- Straits Times (Singapore). 1994.07.14. "ASEAN to discuss Viet entry."
- _____. 1994.07.21. "Vietnam and Laos to be encouraged to join events."

(2017.10.30. 투고, 2017.11.01. 심사, 2017.11.20. 게재확정)

<국문초록>

아세안(ASEAN) 확대과정 분석: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신규회원국 가입을 중심으로

이진영

본 연구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진행된 아세안 회원국 확대 과정의 추동 요인을 가입 희망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질문은 지역협력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가입 결정 시기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는 아세안 창설 초기 아세안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왜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냉전 종식 이후 왜 각기 다른 시기에 가입을 했는지, 그 시기적 차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가입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주장은 아세안 가입의 시기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체제 유지와 같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역협력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협력체 확대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국제체제 변화와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지역협력체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개별회원국이 지역협력체에 가입하는 동기를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미시적 접근으로 이를 보완하였다.

주제어: 아세안(ASEAN), 지역협력체 확대,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CLMV), 아세안-6, 아세안-4,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Abstract>

A Study on ASEAN Enlargement Process:
Focusing on New Member countries, from 1995 to 1999

LEE Jin Young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driving factors of the enlargement process of ASEAN member countries from 1995 to 1999. The main research question is how can it explain the difference in the decision-making timing of countries wishing to join regional cooperation. This study focuses on why the countries that did not join ASEAN in the early years of ASEAN membership, since the mid - 1990s, and why they joined the different period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accession process of Vietnam, Laos, Myanmar and Cambodia. The main argument of the study is that there is a time gap in the accession of ASEAN, but ultimately the regional cooperation is use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maintaining the system.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the expansion of regional cooperation have discussed the expansion of regional cooperation in terms of macroeconomic changes such as international system change.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the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motivating individual member countries to join regional

cooperation and this is complemented by a micro approach.

Key Words: ASEAN, Regional Cooperation, CLMV, ASEAN-6,
ASEAN-4, International Cooperation

